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03.20.(금) 06:00 < 03.20.(금) 석간 > 배포 2026. 03. 19.(목)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WTO 개혁 관련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3.26(목)~29(일),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가 리더십 역할 수임은 최초로 6개국 통상장관들(한국, 노르웨이,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코스타리카)이 조정자(의장)로서 WTO 개혁 논의를 이끌 전망

3월 20일(금)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MC-14 대비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6.03.20(금) 08:00~09:30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ㅇ 참석자 :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 다자통상법무관 등, 전문가장승화(서울대), 강문성(고려대), 정철(KERI), 장상식(KITA), 최승훈(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주실 (044-203-5920)
		담당자	사무관	김승재 (044-203-59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